

#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 보 경\*\* 이 정 숙

한양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매개 효과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 86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 질문지,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공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아동의 위협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공감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극추구 성향이 상승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동의 위협회피 성향이 상승하면 내재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증가하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어머니의 공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며, 아동의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체의 약 6~26%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있으며(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Train, 2000), 아동기 어려움이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되기도 한다(Hofstra, van

\* 이 연구는 문보경의 2012년도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문보경, E-mail: mitdemwind@naver.com

der Ende, & Verhulst, 2002).

아동기에는 성인과 달리 문제행동이 특정 진단 범주와 명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고, 두 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이 동시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합병현상이 빈번하며,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동에 변환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Sroufe, 1997), 넓은 범위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행동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chenbach의 문제영역별 접근에 따르면, 내재화 차원은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과 같이 주로 심리내적인 억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이며, 외현화 차원은 공격성, 충동성, 비행과 같이 아동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인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며, 여러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Cloninger & Svrakic, 1997; Thomas & Chess, 1977). 특히 기질은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igg, 2006; Thomas et al., 1977).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Cloninger, Svrakic, & Przybeck, 1993)에 따른 연구에서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아동의 적응에 불리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loninger et al., 1997; Rettew, Althoff, Dumenci, Ayer, & Hudziak, 2008). 자극추구 기질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유발되는 행동활성화체계, 위험회피 기질은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행동억제체계에 속한다. 자극추구 기질은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활동을 하고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성향, 위험회피 기질은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

제되고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과 관련된 차원이다(민병배, 오현숙, 2007; Cloninger, 1987; Cloninger et al., 1997). 일반적으로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박진아, 2007; Rettew, Copeland, Stranger, & Hudziak, 2004; Schmeck & Poustka, 2001),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와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강지현, 2009; Cons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 & Przybeck, 2002).

이와 같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문제행동의 관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이 어머니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Belsky, Robins, & Gamble, 1984).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도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고(van den Boom, 1995),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지만 어머니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아동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er & Clarke-Stewart, 2008; Morris, Silk, Steinberg, Sessa, Avenevoli, & Essex, 2002).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은 자녀의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아동은 어머니를 관찰함으로써 정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학습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게 된다(Eisenberg et al., 1998; Power, 2004; Thompson, 1994).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와 반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며

(Thompson, 1994), 자녀의 정서 조절과 대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ower, 2004; Spinrad, Eisenberg, Gaertner, Popp, Smith, Kupfer, Greving, Liew, & Hofer, 2007; Thompson, 1994).

이처럼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성은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elsky et al., 1984). 실제로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은 자녀의 정서조절방식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며(임희수, 박성연, 2002;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어머니에게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전략보다 부적응적인 방략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문보경, 2010). 어머니가 공감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며 정서조절을 잘 하고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지만, 어머니가 공감적인 반응을 적게 할수록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과 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문승미, 2006; Rothbaum & Weisz, 1994).

아동의 기질적 성향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에 따라 아동은 어머니와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이 때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과 공감과 같은 어머니 변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Bowlby, 1973; van Ijzendoorn, 1995), 기질도 어머니에 대한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ldsmith & Alansky, 1987). 아동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좌절스러운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고, 위협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비판과 처벌에 민감해지기 때문에(민병배 등, 2007; Cloninger, 1987),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은 이와 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지만(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한 경우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기대를 가지게 되어(Bowlby, 1973), 아동은 분노가 많고 공격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며, 낮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위축되어 회피하기도 하였다(Cassidy, 1994; Steele, Steele, Woolgar, Yabsely, Fonagy, Johnson, & Croft, 200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아동이 기질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자녀의 특성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고 일상의 다양한 경험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자녀가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성향을 보일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Abidin, 1995), 어머니의 민감성이 감소하고 강압적이거나 처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는 아동을 더욱 위축시키거나 공격적으로 만들어 문제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Lee & Bates, 1985; Sanson et al.,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그리고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상호작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문제행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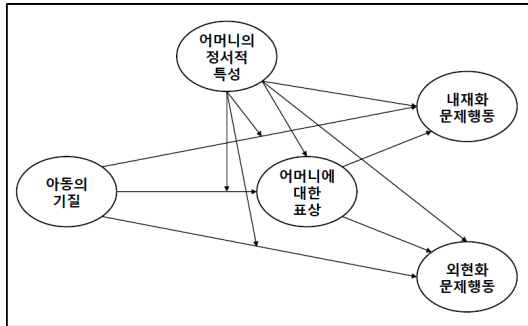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를 가정하며,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대안모형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효과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를 가정하며,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기질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Rettew et al., 2004),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은 부적응적 방략(이정숙 등, 2010)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 절차

연구 자료는 2012년 2월 1-17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소재 5개 초등학교에서 만 7세 이상인 1-3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로부터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담임교사가 아동과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 질문지를,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과 공감, 그리고 인구학적 정보에 대한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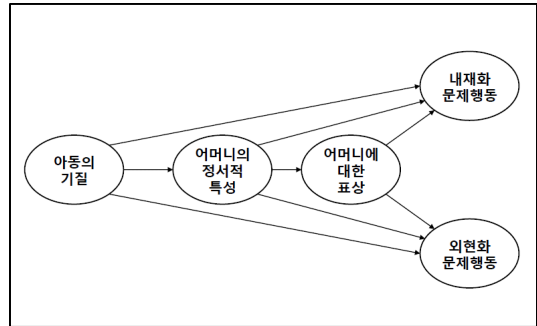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문지를 작성하였다. 약 12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953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91부를 제외한 86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총 862명으로 남아 444명(51.5%), 여아 418명(48.5%)이었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8.05세( $SD=.85$ ), 아버지 평균 연령은 40.93세( $SD=4.28$ ), 어머니 평균 연령은 38.39세( $SD=4.02$ )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각각 60.6%와 56.6%).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연구도구

####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부모보고형을 사용하였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만 4-18세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오경자 등(1997)이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위축, 신체 증상,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행동, 비행의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사고 문제, 주의

표 1 아동과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인원수와 백분율)

구분		남 (N=444)		여 (N=418)		부		모			
아동의 연령	만 7세	133	(30.0)	144	(34.4)	부모의 연령	20대	6	( 0.7)	11	( 1.3)
	만 8세	141	(31.8)	144	(34.4)		30대	317	(36.8)	517	(60.0)
	만 9세	159	(35.8)	125	(29.9)		40대	512	(59.4)	323	(37.5)
	만10세	11	( 2.5)	5	( 1.2)		50대 이상	24	( 2.8)	11	( 1.3)
아동의 학년	1학년	140	(31.5)	149	(35.6)	부모의 학력	고졸 이하	270	(31.3)	348	(40.4)
	2학년	145	(32.7)	137	(32.8)		대졸	522	(60.6)	488	(56.6)
	3학년	159	(35.8)	132	(31.6)		대학원 졸	70	( 8.1)	26	( 3.0)
아동의 형제순위	외동이	70	(15.8)	59	(14.1)	부모의 직업	사무직	262	(30.4)	86	(10.0)
	첫째	135	(30.4)	171	(40.9)		자영업	197	(22.9)	69	( 8.0)
	둘째	197	(44.4)	165	(39.5)		생산/기술직	117	(13.6)	36	( 4.2)
	셋째 이상	42	( 9.4)	23	( 5.5)		전문직	113	(13.0)	72	( 8.3)
가정의 월수입	200 미만	82	( 9.5)			교직	26	( 1.9)	59	( 6.8)	
	300 미만	193	(22.4)			서비스직	58	( 6.7)	69	( 8.0)	
	400 미만	249	(28.9)			주부	0	( 0.0)	436	(50.6)	
	500 미만	169	(19.6)			기타	129	(15.0)	35	( 4.1)	
	500 이상	169	(19.6)								

력 문제, 사회적 미성숙 등의 기타 문제행동을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31문항)와 외현화 문제(33문항)에 해당하는 6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에는 T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2점(꼭 들어맞거나 자주 있었다)까지의 3점 리커트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영역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내재화 문제행동 .88, 외현화 문제행동 .88이었다.

###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용 기질 및 성격검사(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7-11)를 사용하였다.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Cloninger et al., 1993)에 기초하여 개발된 척도로, 국내에서는 민병배와 오현숙(2007)이 표준화하였다. 기질 차원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의 네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자극추구(14문항)와 위험회피(15문항) 기질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은 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 충동성/심사숙고, 무절제/절제, 자유분방/질서정연, 위험회피 기질은 예기불안/낙천성,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쉽게 지침/활기 넘침이라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측정모형 분석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50 이하로 나타난 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 예기불안/낙천성과 쉽게 지침/활기 넘침 요인은 제외하였다. 문항은 0점(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기질 성향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극추구 .84, 위험회피 .83이었다.

###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지영(2008)이 개발한 정서조절방략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개인이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일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다양한 방략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척도는 인지적 방략 5개, 체험적 방략 6개, 행동적 방략 5개를 포함하며, 이 16가지 방략은 지지추구적 방략, 부적응적 방략, 주의분산적 방략, 접근적 방략의 네 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방략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추출방식: principal axis factoring, 회전방식: oblimin)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와 타인 비난하기로 ‘인지적 방략(12문항)’, 요인 2는 폭식하기와 탐닉활동하기로 ‘행동적 방략(7문항)’, 요인 3은 타인에게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와 안전한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 분출하기로 ‘체험적 방략(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3요인은 전체 변량의 43.99%를 설명하였다. 문항은 0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6점(거의 항상 그렇다)의 7점 리커트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방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인지적 방략 .93, 행동적 방략 .68, 체험적 방략 .73이었다.

### 어머니의 공감

어머니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용주(2010)가 개발한 부모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이 척도는 정서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감 전체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과민 정서반응’ 요인을 제외하고, 하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추출방식: principal axis factoring, 회전방식: oblimin)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은 정서지각과 관점수용 문항이 주로 포함되어

‘정서지각과 수용(6문항)’, 요인 2는 냉담한 정서반응 문항이 주로 포함되어 ‘냉담한 반응(8문항)’, 요인 3은 공감적 정서반응 문항이 주로 포함되어 ‘공감적 반응(5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3요인은 전체 변량의 33.16%를 설명하였다.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형식이며, 원 척도의 ‘냉담한 정서반응’을 포함한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정서지각과 수용 .76, 냉담한 반응 .76, 공감적 반응 .71이었다.

###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 중 어머니 영역을 사용하였다. NRI는 다양한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이다. 이 척도는 도움, 만족감, 애정, 인정, 신뢰, 보살피기, 갈등, 처벌, 즐거움의 공유, 주도권, 친밀감이라는 총 11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선진(2006)이 변안한 문항을 기초로 김미정과 노혜숙(2011)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 중 주도권과 보살피기 요인은 그 내용과 난이도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요인을 제외하고,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3개의 측정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에서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안정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shton & Widaman, 1994).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이며, ‘갈등’과 ‘처벌’ 요인의 점수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어머니

니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표상1 .70, 표상2 .72, 표상3 .73이었다.

###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들의 요인 구조에 따라 측정변인들을 구성하였으며,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공감 사이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였다. 다변량인 경우, 상호작용 변인을 잠재변인으로 구성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변인들의 총점을 이용한 측정변인으로 상호작용항을 산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인 점수를 표준화하여 곱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였다. 대안모형이 연구모형의 내재된 모형이 아니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NNFI(TLI)와 RMSEA 지수의 차이를 통해 모형을 비교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채택된 모형에서 유의한 경로를 확인하고, Bootstrapping 방식으로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해 모형이 남녀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의 평균, 표준편차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은 남아가 더 높고( $t=3.979, p<.001$ ), 위험회피 기질은 여아가 더 높았으며( $t=-3.226, p<.01$ ),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공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아는 여아보다 자극추구 성향은 높고, 위험회피 성향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남녀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공감,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그리고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이라는 잠재변인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위험회피 기질(우울/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r=.41, p<.001$ ),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우울/불안과 인지적, 체험적 방략, 각각  $r=.42, p<.001$ ),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공격성과 자유분방/질서정연,  $r=.67, p<.001$ ),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공격성과 인지적, 체험적 방략, 각각  $r=.35, p<.001$ )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성별에 따른 차이

구분	변인	전체 (N=862)		남 (N=444)		여 (N=418)		성차 <i>t</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기질	자극추구 기질	22.11	( 8.32)	23.19	( 8.28)	20.95	( 8.21)	3.979***
	위험회피 기질	23.62	( 8.53)	22.71	( 8.48)	24.58	( 8.48)	-3.226**
어머니의 특성	정서조절방략	17.72	(15.71)	17.63	(16.27)	17.81	(15.12)	-.168
	공감	58.37	( 5.72)	58.63	( 5.77)	58.09	( 5.66)	1.420
표상	모에 대한 표상	73.13	(15.07)	73.13	(14.50)	73.13	(15.68)	.006
문제 행동	내재화 문제	52.58	( 9.31)	52.00	( 9.57)	53.20	( 8.98)	-1.889
	외현화 문제	52.28	( 9.15)	52.18	( 9.30)	52.38	( 9.01)	-.321

\*  $p < .05$ , \*\*  $p < .01$ , \*\*\*  $p < .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chi^2=508.378$ , NNFI=.938, CFI=.956, RMSEA=.046), 모형이 적절하고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매개 효과를 살펴본 대안모형에 비해서도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NNFI=.007,  $\Delta$ RMSEA=.01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직접 효과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 $\beta=.23$ ,  $p < .001$ )와 외현화( $\beta=.76$ ,  $p < .001$ )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위험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은 많이 나타나지만( $\beta=.41$ ,  $p < .001$ ),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eta=.01$ , *ns*). 즉,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내재화( $\beta=.39$ ,  $p < .001$ )와 외현화( $\beta=.27$ ,  $p < .001$ )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지만, 어머니의 공감은 내재화( $\beta=-.04$ , *ns*)와 외현화( $\beta=.09$ , *ns*)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한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부정적이었으며( $\beta=-.12$ ,  $p < .05$ ), 위험회피 성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01$ , *ns*).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beta=.15$ ,  $p < .05$ ),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beta=.33$ ,  $p < .001$ ),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긍정적이었으며, 표상이 긍정적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났다( $\beta=-.08$ ,  $p < .05$ ). 즉,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공감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식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자극추구 기질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beta=.009$ ,  $p < .05$ ),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beta=-.012$ ,  $p < .05$ )과 공감( $\beta=-.026$ ,  $p < .01$ )은 표상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형 검증을 위해 사용된 측정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 및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862)

	자극1	자극2	자극3	위험1	위험2	정서1	정서2	정서3	공감1	공감2	공감3	표상1	표상2	표상3	내재1	내재2	내재3	외현1	
자극1	1																		
자극2	.60***	1																	
자극3	.60***	.63***	1																
위험1	.12***	.10**	.14***	1															
위험2	.07*	.06	.12***	.67***	1														
정서1	.20***	.22***	.20***	.20***	.21***	1													
정서2	.19***	.18***	.21***	.11**	.13***	.51***	1												
정서3	.22***	.23***	.25***	.19***	.18***	.65***	.51***	1											
공감1	-.13***	-.06	-.17***	-.05	-.09**	-.08*	-.06	-.10**	1										
공감2	-.26***	-.21***	-.24***	-.18***	-.18***	-.42***	-.27***	-.37***	.29***	1									
공감3	-.08*	-.08*	-.17***	-.01	-.04	-.15***	-.18***	-.16***	.50***	.43***	1								
표상1	-.12**	-.04	-.20***	-.06	-.06	-.03	-.07*	-.08*	.18***	.19***	.23***	1							
표상2	-.11**	-.06	-.16***	-.06	-.07*	-.03	-.07	-.06	.17***	.17***	.19***	.75***	1						
표상3	-.09*	-.06	-.17***	-.02	-.04	-.04	-.06	-.06	.21***	.21***	.25***	.74***	.80***	1					
내재1	.11**	.10**	.15***	.33***	.37***	.31***	.23***	.27***	-.15***	-.24***	-.16***	-.12***	-.09***	-.09***	1				
내재2	.09**	.14***	.19***	.17***	.14***	.25***	.26***	.30***	-.07*	-.24***	-.12**	-.09**	-.07*	-.10**	.33***	1			
내재3	.27***	.35***	.36***	.41***	.36***	.42***	.37***	.42***	-.09**	-.30***	-.15***	-.11**	-.10**	-.15***	.52***	.45***	1		
외현1	.33***	.37***	.48***	.12**	.12***	.26***	.30***	.26***	-.14***	-.20***	-.16***	-.16***	-.13***	-.11**	.42***	.31***	.48***	1	
외현2	.49***	.54***	.67***	.17***	.09*	.35***	.32***	.35***	-.13***	-.25***	-.15***	-.16***	-.15***	-.15***	.33***	.32***	.57***	.60	1
<i>M</i>	4.94	4.36	6.14	8.37	6.88	10.94	3.58	3.20	18.68	22.73	16.97	24.89	24.15	24.10	60.37	53.55	55.44	54.25	
<i>SD</i>	2.39	2.28	3.64	3.93	3.22	10.34	4.57	3.28	2.24	3.24	1.89	5.28	5.53	5.60	14.09	5.37	7.01	6.06	

주. 자극1=충동성/심사숙고, 자극2=무절제/절제, 자극3=자유분방/질서정연, 위험1=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위험2=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정서1=인지적 방략, 정서2=행동적 방략, 정서3=체험적 방략, 공감1=정서지각과 수용, 공감2=냉담한 반응, 공감3=공감적 반응, 표상1=어머니에 대한 표상1, 표상2=어머니에 대한 표상2, 표상3=어머니에 대한 표상3, 내재1=위축, 내재2=신체증상, 내재3=우울/불안, 외현1=비행, 외현2=공격성.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i>df</i>	NNF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508.378	178	.938	.956	.046 (.042~.051)
대안모형	521.582	133	.931	.946	.058 (.053~.064)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i>B</i>	<i>β</i>	<i>S.E</i>	<i>t</i>
자극추구 기질	→ 내재화 문제	.65	.23	.11	5.837***
자극추구 기질	→ 외현화 문제	1.00	.76	.06	16.498***
위험회피 기질	→ 내재화 문제	1.13	.41	.12	9.666***
위험회피 기질	→ 외현화 문제	.02	.01	.04	.381
정서조절방략	→ 내재화 문제	.41	.39	.05	7.561***
정서조절방략	→ 외현화 문제	.13	.27	.02	6.151***
공감	→ 내재화 문제	-.40	-.04	.59	-.687
공감	→ 외현화 문제	.46	.09	.25	1.854
자극추구 기질	→ 표상	-.18	-.12	.07	-2.633*
위험회피 기질	→ 표상	-.02	-.01	.06	-.327
정서조절방략	→ 표상	.09	.15	.03	2.634*
공감	→ 표상	2.06	.33	.43	4.783***
표상	→ 내재화 문제	-.12	-.07	.06	-1.934
표상	→ 외현화 문제	-.07	-.08	.03	-2.670*
자극×정서조절	→ 표상	.19	.04	.16	1.136
자극×공감	→ 표상	-.04	-.01	.19	-.231
위험×정서조절	→ 표상	-.15	-.03	.20	-.739
위험×공감	→ 표상	-.09	-.02	.20	-.435
자극×정서조절	→ 내재화 문제	.10	.01	.26	.395
자극×정서조절	→ 외현화 문제	.55	.15	.11	5.179***
자극×공감	→ 내재화 문제	-.39	-.04	.30	-1.302
자극×공감	→ 외현화 문제	-.21	-.05	.12	-1.719
위험×정서조절	→ 내재화 문제	.91	.10	.31	2.941*
위험×정서조절	→ 외현화 문제	.16	.04	.13	1.240
위험×공감	→ 내재화 문제	-.32	-.03	.31	-1.036
위험×공감	→ 외현화 문제	.02	.00	.13	.120

\*  $p < .05$ , \*\*  $p < .01$ , \*\*\*  $p < .001$

표 6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Lower Bounds	95% Upper Bounds
자극추구 기질 → 표상 → 외현화 문제	.009*	.002	.025
정서조절방략 → 표상 → 외현화 문제	-.012*	-.034	-.002
공감 → 표상 → 외현화 문제	-.026**	-.062	-.007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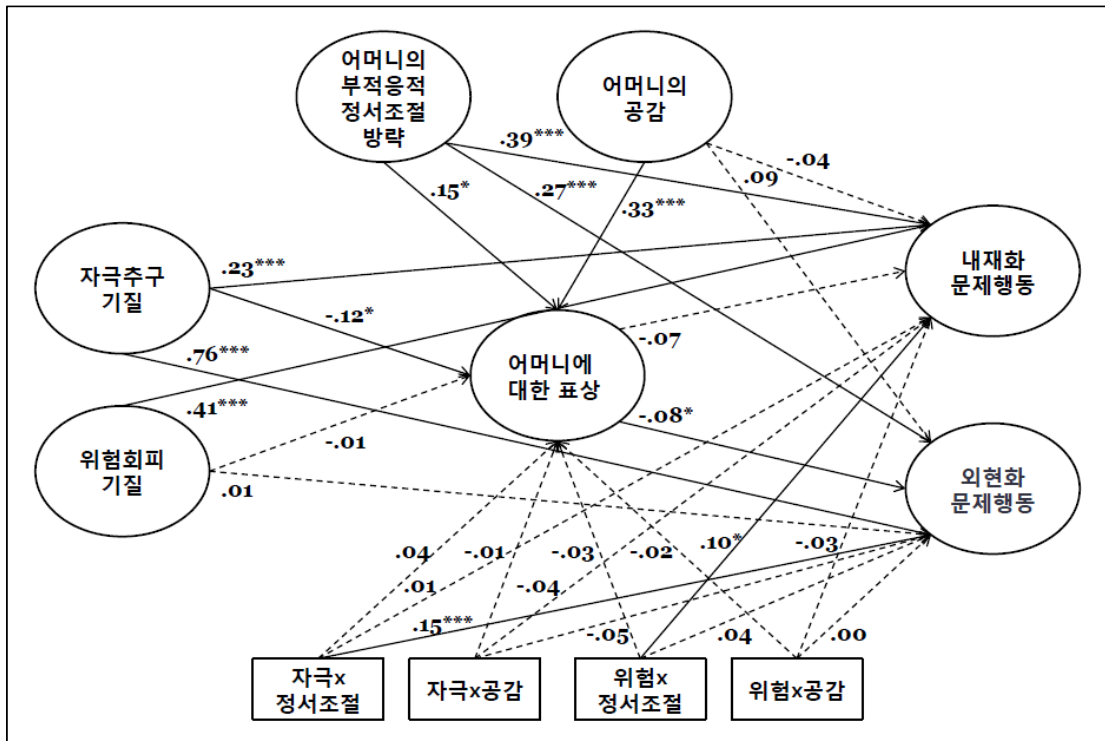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  $p < .05$ , \*\*  $p < .01$ , \*\*\*  $p < .001$ )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은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beta=.15, p<.001$ ), 위험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 $\beta=.10, p<.05$ )에서 정적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 성향이 상승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이, 위험회피 성향이 상승하면 내재화 문제행동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채택된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든 요인 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저 모형과 비교한 결과,  $\chi^2$  차이가 유의하고( $\Delta\chi^2=101.740, p<.001$ ), NNFI와 RMSEA 지수 역시 기저모형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 $\Delta NNFI=.014, \Delta RMSEA=.004$ ), 완전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에서  $\chi^2$  값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부터 동일화 제약을 하나씩 풀어주며 순차적으로 부분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재화 문제와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에 해당하는 세 요인의 동일화 제약을 제거했을 때,  $\Delta\chi^2=13.060(\Delta DF=9, p>.05)$ ,  $\Delta NNFI=.001$ ,  $\Delta RMSEA=.000$ 으로 기저모형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측정동일성 모형이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남녀 집단의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에서 경로계수가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부분측정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결과, 완전구조동일성은 기각되었다.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구조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여 유의한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 $\Delta\chi^2=18.843, p<.001$ )과 위험회피 기질( $\Delta\chi^2=13.802, p<.001$ ),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Delta\chi^2=3.935, p<.05$ )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 그리고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 $\Delta\chi^2=7.174, p<.01$ )과 공감( $\Delta\chi^2=5.487, p<.05$ )이 표상에 이르는 경로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의 영향은 남아( $\beta=.16, p<.01$ )와 여아( $\beta=.32, p<.001$ ) 모두 유의하지만 여아의 회귀계수 값이 더 크고, 위험회피 기질의 영향은 남아( $\beta=.42, p<.001$ )와 여아( $\beta=.40, p<.001$ ) 모두 유의하지만 남아의

표 7 남녀 집단의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검증

	$\chi^2$	DF	NNFI	CFI	RMSEA	모형비교		
						$\Delta DF$	$\Delta\chi^2$	P
Unconstrained	690.421	356	0.940	0.958	0.033			
완전측정동일성모형	792.161	368	0.926	0.946	0.037	12	101.740	0.000
부분측정동일성모형	703.481	365	0.941	0.957	0.033	9	13.060	0.160
구조동일성모형	821.175	391	0.929	0.945	0.036	29	117.694	0.000

표 8 남녀 집단의 부분구조동일성 검증

경로	$\chi^2$	DF	NNFI	CFI	RMSEA	모형비교		
						$\Delta DF$	$\Delta\chi^2$	
자극추구 기질 → 내재화 문제	722.325	366	.938	.955	.034	1	18.843***	
위험회피 기질 → 내재화 문제	717.283	366	.938	.955	.033	1	13.802***	
정서조절방략 → 내재화 문제	707.416	366	.940	.957	.033	1	3.935*	
정서조절방략 → 표상	710.656	366	.940	.956	.033	1	7.174**	
공감 → 표상	708.968	366	.940	.957	.033	1	5.487*	

표 9 남녀 집단의 경로계수

경로	남아				여아			
	B	$\beta$	S.E	t	B	$\beta$	S.E	t
자극추구 기질 → 내재화 문제	.24	.16	.08	3.116**	1.30	.32	.24	5.467***
위험회피 기질 → 내재화 문제	.73	.42	.10	7.593***	1.46	.40	.20	7.116***
정서조절방략 → 내재화 문제	.26	.44	.04	6.321***	.48	.33	.12	4.080***
정서조절방략 → 표상	.01	.02	.05	.249	.19	.33	.06	3.545***
공감 → 표상	1.27	.22	.55	2.324*	3.02	.52	.72	4.164***

\*  $p<.05$ , \*\*  $p<.01$ , \*\*\*  $p<.001$

회귀계수 값이 더 크며,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영향은 남아( $\beta=44, p<.001$ )와 여아( $\beta=33, p<.001$ ) 모두 유의하지만 남아의 회귀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여아, 위협회피 기질과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남아의 경우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상의 경우,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의 영향은 남아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beta=.02, ns$ ), 여아 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3, p<.001$ ). 어머니의 공감의 영향은 남아( $\beta=.22, p<.05$ )와 여아( $\beta=.52, p<.001$ ) 모두 유의하지만 여아의 회귀계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경우에만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며, 어머니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니에 대해 더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이는 자극추구 기질 성향이 더 높고, 여아는 위협회피 기질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이는 여아보다 자극추구 성향이 더 높고(박진아, 2007; 이정숙 등, 2010; Constantino et al., 2002), 여아는 남아보다 생소한 대상에 접근하는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Rothbart,

198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이는 여아에 비해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 되는 성향이 강하며, 여아는 남아에 비해 위험이나 처벌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억제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경우, 아동의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고, 위협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극추구 기질과 위협회피 기질이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연구(강지현, 2009; 이정숙 등, 2010; Cloninger et al., 1997; Rettew et al., 200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재화 문제는 행동 억제와 활성화 관련된 아동의 기질적 특성, 외현화 문제는 행동 활성화와 관련된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의 경우,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정숙 등, 2010; 임희수 등, 2002; Eisenberg et al.,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가 부적응적 방략을 주로 사용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자녀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고(Cummings et al., 1989), 아동이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을 경험 속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써(Eisenberg et al., 1998), 문제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여아, 위협회피 기

질과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남아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여아의 자극추구 기질과 남아의 위험 회피 기질은 남녀의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박진아, 2007; Tannen, 2007), 일상 생활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내재화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이 남아의 내재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초기 아동기에는 남아가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권연희, 박경자, 2003; Hetherington, Cox, & Cox, 198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아가 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며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Eisenberg et al., 1996; Lytton & Romney, 1991), 남아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적응적인 방략들을 자녀를 향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로 인해 내재화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극추구 기질,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과 공감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Goldsmith et al., 198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으

로 불안정해지며 좌절스러운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민병배 등, 2007; Cloninger, 1987),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어려움들을 보다 힘겹게 경험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이 아동의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연구(임희수 등, 2002; Eisenberg et al., 1998)와 불일치하는 결과로, 여아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표상하며(Oppenheim et al., 1997), 관계에 의존적이고(신희영, 2006; Lytton et al., 1991),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장점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Tannen, 2007)는 점에서, 어머니가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편향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며,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표상 형성에 중요하며(Bowlby, 1973; van Ijzendoorn, 1995), 어머니의 공감 반응에 남아보다 여아가 더 안정을 얻는다는 연구(Eisenberg et al., 1993)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어머니의 공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이 자극추구 기질의 영향으로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과 공감의 영향으로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문제행동과 관련 된다는 연구(Oppenheim et al.,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일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Bowlby, 1973), 정서 표현이나 조절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Cassidy, 1994),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우호적이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신뢰를 경험할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은 자극 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 위협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특성을 가진 아동도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Belsky et al., 1984),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강화한다는 연구(이정숙 등, 2010; Rothbaum et al.,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가 기질적으로 취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머니가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더욱 증가하지만,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어머니의 부적응적인 정서 조절방략이 아동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기질과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여 문제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반면, 어머니의 공감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통해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지연, 곽금주, 2010; Calkins, Smith, Gill, & Johnson, 1998)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공감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의 기질에 따른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와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실제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 상담과 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성별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여,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자녀를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동의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과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어머니 보고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평가에는 아동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반응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행동 관찰이나 어머니 면접, 교사 보고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경우 언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사적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수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사례가 많지 않았다. 내담 아동의 경우, 변인들의 영향력이나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 없었다.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실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지현 (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연희, 박경자 (2003). 아동의 정서성 및 어머니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 23-38.
- 김미정, 노혜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 관계 특성과 치료 동맹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 67-8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문승미 (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배, 오현숙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서울: (주)마음사랑.
- 박진아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희영 (2006). 초·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전략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 55-74.
- 이지연, 광금주 (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 85-102.
- 이지영 (2008). 정서조절방략과 정서장애의 관계 및 체험적 정서조절방략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 37-54.
- 정선진 (2006).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 Assessment Resource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elsky, J., Robins, E., & Gamble, W.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ompetence: Toward a contextual theory.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Calkins, S. D., Smith, C. L., Gill, K. L., & Johnson, M. C. (1998). Maternal interactive style across contexts: Relations to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gulation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7*, 350-369.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49.
- Cloninger, C. (1987).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 Svrakic, D. M. (1997). Integrative psychobiological approach to psychiatric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iatry, 60*, 120-141.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onstantino, J. N., Cloninger, C. R., Clarke, A. R., Hashemi, B., & Przybeck, T. (2002).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09*, 229-243.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 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Speer, A. L., Switzer, G., Karbon, M. & Troyer, D. (1993). The Relations of Empathy-Related Emotions and Maternal Practices to Children's Comfort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5*, 131-150.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al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5, 805-816.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ofstra, M. B.,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2). Child and adolescent problems predict DSM-IV disorders in adulthood: A 14-year follow-up of a dutch epidemiologic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182-189.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infant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ytton, H. & Romney, D. M. (1991). Parents'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boys and girl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67-296.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 771-786.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J. (2002).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461-471.
- Nigg, J. T. (2006).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7, 395-422.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 Power, T. G. (2004). Stress and coping in childhood: The parents' role.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4, 271-317.
- Rettew, D. C., Althoff, R. R., Dumenci, L., Ayer, L., & Hudziak, J. J. (2008). Latent Profile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 273-281.
- Rettew, D. C., Copeland, W., Stranger, C., & Hudziak, J. J. (2004).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DSM-IV ex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5, 383-391.

- Rothbart, M. K. (1988).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inhibited approach. *Child Development, 59*, 1241-1250.
- Rothbaum, F. & Weisz, J. R. (1994). Parental caregiving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 in nonclinical sampl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55-74.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 142-170.
-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sychopathology, 34*, 159-163.
-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Greving, K., Liew, J., & Hofer, C. (2007). Relationship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170-1186.
- Sroufe, L. A. (1997). Psychopathology as an Outcome of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251-268
- Steele, M., Steele, H., Woolgar, M., Yabsely, S., Fonagy, P., Johnson, D., & Croft, C. (2003).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children's emotion narratives: Links across generation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Eds.), *Revealing the inner world of young childre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annen, D. (2007). *You just don't understand :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 Harper.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a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Train, A. (2000). *Children behaving badly*. London: Souvenir Press.
- van den Boom, D. C. (1995). Do first-year intervention effects endure? Following up during toddlerhood of a sample of Dutch irritable infants. *Child Development, 66*, 1798-1816.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1차 원고 접수: 2013. 01. 14.  
수정 원고 접수: 2013. 02. 21.  
최종 게재 결정: 2013. 02. 22.

# Effects on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of the Child's Temperament,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Child's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Bogyong Mun    Jung-Sook Lee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hild's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tempera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Participants were 862 elementary students (grades 1-3) and their mothers. All of the children completed a questionnaire assessing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ir mothers (NRI). In addition, the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about the child's temperament (K-JTCD), behavioral problems (K-CBCL), maternal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ERSQ), and empathy (PEI).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direct effects of the child's temperament and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High scores for the child in novelty seeking and high scores for the mother on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child's score on harm avoida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problems. The indirect effects of the child's temperament and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were also significant. Novelty-seeking temperament in the child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xternalizing problems through the child's negativ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pathy in the mother had negative effects on externalizing problems through the child's positiv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Children with high novelty-seeking scores showed more externalizing problems while children with high harm avoidance scores showed more internalizing problems when their mothers scored high on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ith reference to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s temperament, maternal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aternal empathy, child's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other, child's behavioral problems